

강화군, '관청리 공영주차장' 준공 경제활력 기대 | 원도심 주차난 해소. 만성적 주차난 해결, 원도심 관광 접근성 향상 기대 |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9일 박승한 강화군의회의장, 박용철 시의원, 내·외빈 관계자 및 관내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청리 공영주차장' 준공식을 가졌다.

군은 '관청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강화읍 관청리 878번지 일대 부지면적 1,170㎡에 차량 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다.

강화읍 관청리 일대는 원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일찍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한 접근성이 부족해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에 연이어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며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과 접근성 향상으로 발전 잠재력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관청리 공영주차장'에 24시간 작동하는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 주차장 보안을 강화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해 쌈지주차 9대 공간도 추가로 확보했다.

한편, 원도심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이후 306억 원을 투입해 16개소 1,034면의 공용 주차공간을 확충했으며, 올해 말까지 2개소 162면도 추가로 준공된다. 주차장 조성이 모두 완료되면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와 함께 원도심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주차장 준공으로 군민과 방문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과 주거 밀집지역, 관광지 등에 공용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Ganghwa-gun Mental Health Center

세계자살예방의날 기념
강화군민의 마음건강인식도 조사 참여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강화군민의 마음건강인식을 파악하여 강화군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강화군민 누구나
- 조사기간** 22. 9. 1 (목) ~ 22. 9. 30 (금)
- 참여방법** QR코드 촬영후 설문지 작성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ghmhc.or.kr>)
- 경 품** 100명 무작위추첨하여 커피쿠폰제공
- 당첨자 발표** 10. 6 (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경품발송** 10. 11 (화) 9:00~11:00
- 문 의**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032-932-4093)

QR코드

유천호 강화군수,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대상 수상

| 군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 변화·혁신 이끌며 지역발전 공로인정 |



유 천 호
강화군수

유천호 강화군수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한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에서 기초부문(지방자치단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에서 유천호 군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6명만 선정하는 기초부문에 선정되며 그 동안의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정해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수상자의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수여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행복센터 건립 ▲주차장문제 해결 ▲갑룡·관청·남산 등 도시공원 조성 ▲지혜의 숲 도서관 건립 ▲국공장 조성 ▲신정 체육공원 조성 ▲어르신 돌봄 복지망 구축 ▲3대 클린프로젝트 추진 ▲역대 최대 규모의 규제개선 ▲마을안길 통행문제 해결 ▲화개정원 조성 등을 추진해 강화군민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며 군민 중심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자치발전 대상은 지역을 위한 군의 노력에 군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보답해주신 결과”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희망하는 군민 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민선 8기 공약이행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 ‘총력’



시비확보를 위한 시의원간담회(사진제공 강화군)

유천호 강화군수는 25일 2023년도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철 시의원(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및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의 핵심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확고히 했다.

특히, 유천호 강화군수는 국·과장이 민선 8기 공약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40건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군민의 눈높이에서 깊이 있는 논의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논의된 현안으로는 ▲전국 최고의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주문연도교 건설사업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조성 ▲강화군 장애인회관

신축 ▲황산·온수·갑곶·관청 공영주차장 조성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농기계 구입비 지원 ▲양식장 어업용 기자재 지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 지원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축사 환경개선 설비지원 ▲저수지 수변경관 조성 ▲도로 확포장 및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마을 중심의 여가·복지 시설 확충과 미래산업인 농·축·어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군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368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944억 원을 건의했다.

박용철 시의원은 “강화 지역이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군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다”며 “강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우리군 입장에서는 시비 보조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서장을 중심으로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5대 공약으로 ▲광역 교통망, 도로망 및 대중교통 확대 ▲마을 중심 여가시설 확충 ▲적시적소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안정적인 농·축·수산업·소상공인 및 청년 취·창업 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또한 신속한 공약이행을 위해 114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해, 매월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업별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을지연습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

| 전시에에도, 군민의 생명·재산보호 최우선 |



을지연습 준비태세 및 간부회의(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5일까지 진행하는 ‘2022년 을지연습’을 통해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나섰다.

올해 54번째를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강화군,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해 전시 대비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각종 위기에 대한 비상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대비 연습이다.

군은 22일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전환, 전시직제·예산편성, 지휘소 이동연습, 민방공 대피훈련 및 전시현안과제 토의 등을 실시하는 실전같은 훈련으로 국가총력전에 대비한 국가비상 대비태세를 점검한다.

또한, 자체 강평을 실시해 연습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해 전시상황에서 군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도록 대응태세를 개선할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최극 북한 핵 위협, 국제 안보상황 불안 등으로 어느 때보다 국가 안보가 엄중한 시기”라며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실제상황에 군민의 안전과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자세로 훈련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번, 군은 을지연습 기간 중 노출·비노출 병행 감찰을 통해 훈련으로 본연의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점검을 강화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

|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 |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는 옹진·가평·연천군의회와 함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강화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선해줄 것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된 규제와 고질적인 낮은 재정 자립도 등으로 자체적인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강화·옹진·가평·연천군 등 비수도권 등 광역시 군지역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고 제조업 종사자 비율 및 도시적 토지이용률이 저조하다.

이에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4개군이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목소리로 뜻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강화·옹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4개군 강화·옹진·가평·연천군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옹진·가평·연천군의회와 함께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최백하 기자

Photo NEWS 현장행정 및 내고장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강화섬쌀 첫 수확



교동 난정해바라기 정원



등산로 제초작업

강화군, 귀성객의 쾌적하고 안전을 위한 도로정비!

| - 관내 주요도로 367km 대상, 도로관리 전담반을 편성 |



노후 도로구간 아스콘 재포장 및 차선도색(사진제공 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명절을 맞아 도로관리 전담반을 편성하고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관내 주요도로 367km(국지도 84호선 19.15km, 광역시도 64호선 59.91km, 군도 215.55km, 농어촌도로 73km)에 대해 귀성객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은 사전 조사를 완료했으며, 다음달 7일까지 ▲노후 도로구간 아스콘 재포장 및 차선도색 ▲노면 포트홀, 도로사면 점검 및 침하·변형 등 응급복구 ▲도로 측구 및 배수로 정비 ▲제초작업 등 각종 위험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공사 중인 구간은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에 초점을 맞춰 공사가 진행된다.

유천호 군수는 “명절기간 방문객과 군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에서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강화군을 찾는 귀성객 및 방문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 ‘아름답고 깨끗한 강화’ 만들기에 총력전

| 재활용 동네마당 및 재활용전용봉투 보급 확대 |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쓰레기 감량과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군은 심벌마크인 햇불을 형상화해 ‘재활용 동네마당’ 만들어 마을의 미관 개선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 375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100개소가 추가로 설치된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역점 사업이다. 재활용 동네마당에는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쓰레기 관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리배출 방법을 군민에게 직접 안내해 호평을

받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동네마당은 주민의 의견과 접근성을 고려해 활용도가 큰 곳으로 이동 설치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재활용 품목별 전용봉투를 150만 장을 제작해 재활용률을 끌어올리며 ‘아름답고 깨끗한 강화’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활용 전용봉투’는 기존에 소각용, 매립용으로 구분하던 쓰레기 봉투를 ▲투명 페트병 ▲캔 ▲플라스틱 ▲유리병 등 4종류로 구분해 배출하도록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올해에만 104만 장을 보급했다.



재활용동네마당_환경위생과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466대를 운영하고 있다. 주·야간 동작감시 기능을 갖추고 전담 요원이 모니터링해 올해에만 31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천호 군수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기 위한 시책을 더욱 강화해 어디를 가도 깨끗한 강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민, 민통선 현실 맞게 조정‘촉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민통선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는 연명부를 접수받아 대통령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수도군단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화군민들은 8천여 명이 서명한 연명부로 지정한 지 50년도 넘는 민통선 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통선 주민들은 자신의 농지 출입조차 자유롭지 못하고, 한강하구의 풍족한 어족자원에도 수로나 포구에서 어로 활동을 할 수 없다. 또한, 각종 개발행위에도 제약을 받는 등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에 군은 현실을 반영해 주민의 주거·재산권과 국가 안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민통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강화군 교동도는 교통량 증가에도 국도를 막고 이뤄지는 검문 방식은 50년 전과 똑같아 군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검문 체증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교동도는 섬 전체가 한미연합사령부가 정한 민통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섬의 80%가 철책으로 둘러쌓여 바닷가 접근이 차단되었다. 지난 2014년도에는 본도와 48국도 상 연륙교로 연결되며 인접 시·군과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였다.



교동대교 입구 검문대기 차량(사진제공 강화군)

항교익 이장단장(교동도)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며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말도 있지만, 군부대는 50년 전 검문 방식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민통선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교동도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신봉리 검문소와 교동대교 검문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군민의 입장에서 민통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저소득·다문화·다자녀 학업지원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정 중·고등학생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생으로 거주지 읍·면에 신청 시 연 최대 345,000원을 지원한다.

강화군의 면적은 인천광역시의 약 40%인 411km²이고 중·고등학교가 강화읍에 편중되어 있어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교통비 부담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크다. 이에 군은 인천광역시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안정된 학업지원을 위한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신청을 받는다. 지난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지원되며, 하반기 신규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교통비는 매 학기가 끝나고 각 학교의 수업일수를 확인해 일괄 지급한다.

유천호 군수는 “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 청소년

강화군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2022년 하반기
교통비 신청 안내 **2022. 8. 22. 월 ~ 9. 9. 금**



신청자격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다문화·저소득 가정 학생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방문 신청
지원내용	연간 최대 345,000원/1인 지원(강화군내 버스요금 기준 지원)
제출서류	(공통) 교통비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기본증명서상세

상반기 신청대상자는 자동반영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반기 교통비는 12월 말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신청시, 신청서상 청소년의 학년, 반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세요.

문의처 : 강화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아동복지팀 032-930-3584

훈맹정음의 고장 강화군 촉각점자 안내판 첫 설치



촉각점자가 적용된 종합안내판(사진제공 강화군)

한글 촉각점자인 훈맹정음의 창시자 송암 박두성 선생의 출생지인 강화군은 2000년 고창·화순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70기의 고인돌 유적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시각장애인들의 고인돌 방문이 매년 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안내판이 없어 그동안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유산 접근성이 제한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군내 인천문화재 돌봄센터와 포스코건설 문화재 돌봄봉사단이 나섰다.

지난 22일 강화군내 인천문화재 돌봄센터와 포스코건설 문화재 돌봄봉사단의 협업으로 강화 고인돌 유적지에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촉각점자가 적용된 종합안내판을 설치했다.

송암 박두성 기념사업회의 자문을 거친 안내판은 시각장애인들이 고인돌에 대한 해설과 주변 16기의 고인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제작되어, 장애인들이 관람 동선을 쉽게 파악하고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해졌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포스코건설 문화재 돌봄봉사단의 김종보 차장은 “포스코건설은 기업시민 경영이념 및 ESG 경영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해 임직원들이 지역문화재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포스코건설 임직원의 급여 1% 나눔으로 진행되는 Change My Town 사업을 통해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에도 촉각점자 안내판 설치 봉사를 하여 시각장애인의 지역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무, 배추 등 김장채소 8월 중·하순이 파종 적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순무, 배추 등 김장채소 파종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적기 파종과 정식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순무는 재배 및 관리를 양호하게 하려면 파종기를 이용해 점파 후 밭에 빈 곳(결주)이 없도록 한 곳에 3~5립씩 파종 및 숙아주면 된다. 특히 밭을 깊이 갈아서 흙을 잘게 부수고 뿌리가 잘 뻗어 내려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육 적정온도는 15~20℃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배추 정식은 모가 너무 크면 초기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에 파종 후 15~20일정도 길러 잎이 3~4개 정도 자랐을 때(8월 하순경) 흐린 날 오후를 선택해 본 밭에 옮겨 심는 것이 좋다.

김장용 배추, 순무 등 김장채소의 파종 적기는 절기상 말복(末伏)이 지나고 난 후인 8월 중순부터 하순경이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바이러스 및 뿌리마름병 피해를 받을 수 있고 파종시기가 늦어지면 제때 수확이 어려워진다.



순무정식(사진제공 농업기술센터)

정식할 포장은 아주심기 10~15일 전에 완숙퇴비나 석회, 분사 등을 포장 전체에 뿌린 후 트랙터 등으로 갈아 흙과 잘 혼합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랑을 만들기 전에 포장 전체에 밑거름과 토양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배추, 순무 등 김장채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 상황에 맞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 고품질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영농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경기도체전 김포시선수단 출정식 (사진제공 김포시)

김포시, 3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 출정식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8월17일 김포컨벤션웨딩홀에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하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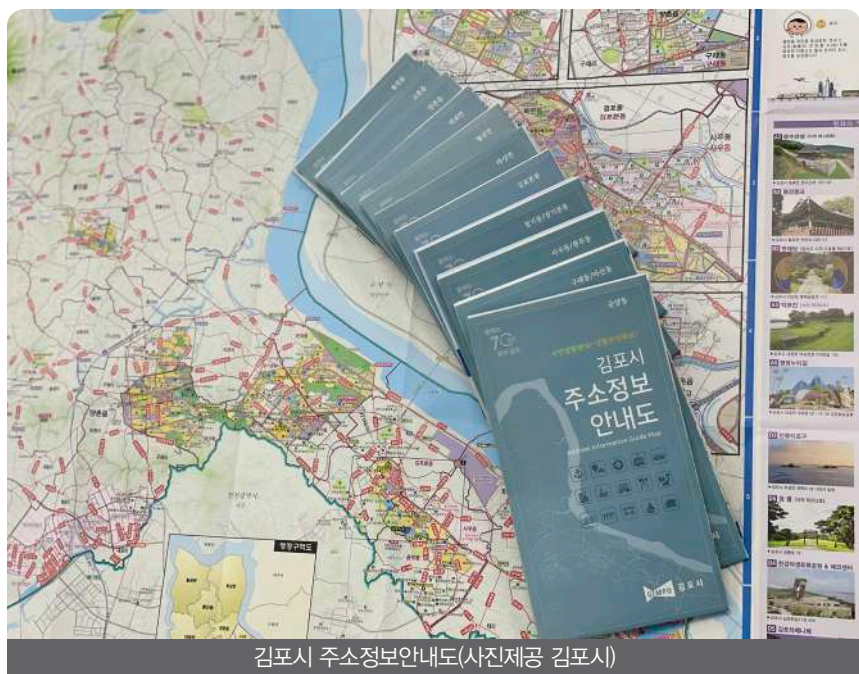
이날 출정식에는 김병수 김포시장, 김인수 시의회 의장 등 내·외빈과 임청수 김포시체육회장과 선수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선수단 대표로 나선 신동현(농구), 권경채(축구)는 결의문 낭독을 통해 대회에서의 선전을 다짐하였으며 임청수 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원진이 각 종목 선수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 날 축사를 통해 “3년 만에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후회 없이 발휘하여 우리 시의 기상과 열정을 보여주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참가선수 모두가 다치는 일 없이 대회를 마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5일 용인시에서 개막하는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에 김포시는 배구를 제외한 22개의 정식종목 35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1**

2022년 김포시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김포시 주소정보안내도(사진제공 김포시)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도로명주소 사용자 편의 제공과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2022년 김포시 주소정보 안내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소정보 안내도는 11개 생활권역별로 제작하여 앞면에는 김포시 전도가, 뒷면에는 권역별 상세지도를 수록하여 지도 사용자들이 김포시 주요 도로명부터 세부 도로명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서·소방서·학교·우체국 등 김포시의 주요 공공기관 또한 빠짐없이 담아낸 안내도는 지도의 보관 및 소지에 편리하도록 접지형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소정보 안내도는 최근의 김포시 도로 구간 및 주요 시설을 모두 반영하여,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김포시 주소정보 안내도는 김포시청 주소정보팀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김포시청 홈페이지(www.gimpo.go.kr)-김포소식-알림사항-부서별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1**

- 송기훈 기자

국난극복의 피난처에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시작점 강화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군 테마노선을 개방



강화는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피난(안식)처의 역할을 해온 곳이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온 곳으로 북한과 마주한 강화의 북쪽 해안에는 옛 군사시설인 돈대가 아직도 국방과 평화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인천시는 9월 16일(금)부터 12월 18일(일)까지 강화군 비무장지대 인근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군 테마노선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디엠지(DMZ) 평화의 길'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길로, 참가자들은 '테마노선'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강화에는 이번 테마노선 코스 외에도 볼 것들이 다양하다. 특히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연미정, 북한이 한눈에 보이고 피난민의 그리움이 담긴 교동망향대, 고려시대 왕릉 등을 볼 수 있는 강화 나들길은 강화만의 맛을 느끼기에 제격이다.

또한 의두돈대에서 시작하는 해안 철책로를 따라 걷고, 실향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대룡시장에서 레트로 감성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강화 평화전망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797

- 주요시설 : 1층 : 관리실, 매장, 식당, 화장실 / 2층 : 전시실, 옥외전망대 / 3층 : 북한땅조망실, 옥외전망대 / 지하1층, 4층 : 군부대 전용시설 / 부대시설 : 망배단

강화 평화전망대는 '제적봉'이라는 이름의 봉우리 위에 세워진 전망대로 원래 해병 장병들이 강화도 북쪽 해안선을 경계하기 위해 주둔하던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던 지역이었다.

2006년 말부터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던 양사면 철산리 민통선 북방지역 임야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타 지역에선 전망하기 힘든 이북의 독특한 문화 생태를 아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준공되어 2008년 9월 5일 개관하였다. 평화전망대에는 고성능 망원경과 전쟁의 참상과 흔적을 볼 수 있는 강화의 국방체험과 북한의 도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통일정책을 볼 수 있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우리는 한민족, 북한으로의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통일로 가는 길, 끝으로 한국전쟁 당시의 배경과 국내·외 전쟁 발발과정 및 그 이후 생애 잊지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상황 등을 영상시설을 통해 볼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평화전망대는 2.3km 거리에 불과한 한강하구 너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육안으로 아무 방해물 없이 파노라마로 조망 할 수 있다. 또한 개성까지 직선거리로 18km에 불과하여 날씨가 좋은 날이면 저 멀리 송악산 능선까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합쳐져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곳에 위치해 풍경이 아름답다.

의두돈대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철산리 산1

의두돈대(蟻頭墩臺)는 불장돈대에서 철산리 방향으로 약 800여m를 가면 해안 쪽으로 돌출된 지역 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부는 일부 국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돈대'는 외적의 침입이나 척후 활동을 사전에 관찰하고 대비할 목적으로 접경지역 또는 해안에 흙이나 돌로 쌓은 소규모의 방어시설이다. '의두돈대(蟻頭墩臺)'는 평면 형태가 장방형에 가까운 사다리꼴 형태의 돈대로 전면은 송악산 방향을 조망하기 위함이고, 측면 포좌는 해창리 방향 계곡으로 침입하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된다.

현재에도 '의두돈대' 조선시대와 현대의 국방시설이 함께하는 역사와 시간이 중첩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룡시장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교동남로 35

교동도 대룡시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피난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든 골목시장이다.

교동도는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황해도 연백군과 마주 보는 접경지이자 최전방 섬이다. 북한과 지리적으로 워낙 가깝기 때문에 6·25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연백을 통해 남한 땅 교동도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피란민들이 생계를 위해 면 소재지였던 대룡리에 좌판을 벌인 것이 대룡시장의 시작이 되었다. 대룡시장 골목 곳곳에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들과 조형물, 오래된 간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입구에는 교동도에 자주 찾아오는 제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교동 제비집"이라는 건물이 있다. "교동 제비집"에서는 교동도 주변 여행 정보도 얻고, 360도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대룡시장에서는 일제 강점기때 쌀을 수탈해가던 일제의 눈을 피해 아이들에게 떡을 먹이기 위해 만들었다는 '강아지 떡'이라 불리는 이북식 떡도 맛볼 수 있다. 1

참고자료 : 문화재청 / 인천시청 / 강화군청 / DMZ 평화의 길 두루누리

사진제공 : 강화군청 / DMZ 평화의 길 두루누리



의두돈대(사진제공 강화군청)



의두분초(사진제공 강화군청)



대룡시장(사진제공 강화군청)

기고

세계금속활자발상중흥 기념비



고 수 진
강화향교 장의

가을에 출간할 필자의 글 모음집을 취재하고 있던 차에 문수 산성을 답사하고, 강화대교 갑곶나루터를 탐방하였습니다. 그리고 갑곶진의 전쟁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필자는 2009년에 강화역사문화 해설사 학과과정을 마치고 강화도 역사문화 해설사로 활동했습니다. 해설사 사무실을 보니 옛일이 그리워졌습니다. 때마침 5월 중순이라 철쭉꽃이 붉게 전쟁박물관 전체를 물들였습니다. 내 마음의 주단을 깔아놓은 듯 멋진 5월의 하루였습니다. 한데 잠시 발길이 멈춘 곳이 '세계금속활자발상중흥비(世界金屬活字發祥中興紀念碑)'앞이었습니다. 당시 해설사로 근무하던 때에는 이 기념비를看過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강화도 역사문화 해설사로서 이 기념비를 무시한 처사는 크게 어리석은 짓을 범한 것입니다. 왜 이토록 중요한 역사문화의 기념비를 지나쳤는지 후회가 막급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잡지사인 <타임>에서 발행한 '더 라이프 밀레니엄(The Life Millennium)'에 따르면 인류가 지난 천 년 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사건 가운데 금속활자의 발명을 단연코 으뜸으로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 잡지사에서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던 즈음에 지난 천 년, 서기 1000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을 정리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건을 100가지를 선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했다 합니다. 그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것이 금속활자의 발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대륙 발견도 아니고, 종교혁명도 아니고, 산업혁명도 아니었습니다. 인류 전체를 뒤집어 놓은 어떠한 전쟁이나 사상혁명이 아닌 단지 금속활자 발명으로 인한 인쇄술을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인쇄술로 인한 책의 대중화 보급은 급속도로 지식과 정보의 공유로 만천하를 통일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부 지식 권력층으로부터 대중들은 무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서양의 일례를 들어보면 독일의 쿠텔베르크의 '42행성서'는 금속활자 인쇄는 전 세계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파급 효과가 대단한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성경이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인의 금속활자 발명은 무려 221년이나 이에 앞섰다는 겁니다. 금속활자의 발명이 상서롭게 일어나고 활짝 꽃핀 곳이 자랑스럽게도 우리 강화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 역사문화의 선각자들이 세운 '세계금속활자발상중흥기념비' 앞에 선 것이 감개무량했습니다.

"發想발상"을 "發祥발상"이라 표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의의를 가질만한 일이 처음 시작됐다'란 뜻입니다. 즉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겠습니다. 세상의 좋은 징조가 강화도에서 시발했고, 중흥했다는 것입니다. 고려국 최고의 발명품이 금속활자라는 거고, 바로 『詳定古今禮文상정고금예문』이란 서책입니다. 풀이하자면 '고금의 禮예에 대한 문적들을 상세히 정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의례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정부가 몽골전쟁을 피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서 1234년경에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합니다. 이규보 선생의 『東國李相國集동국이상국집』의 「新印詳定禮文跋尾신인상정예문발미」라는 글에,



"최윤의(고려 인종) 등이 편찬한 『상정예문』이 오랜 세월 거치는 사이 책장이 탈락되고 글자가 이지러져 내용을 참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崔怡최이의 선친 崔忠獻최충헌이 보완케 하여 2부 작성한 후 1부는 禮官예관에 주고, 1부는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상정예문』은 고려 인종 당시 최윤의 등 17명의 학자들이 왕명에 따라 1147~1162년까지의 공포된 법령과 규범들을 수집·고증해서 50권으로 편찬한 禮書에서입니다. 이 문적이 몽골이 침입하자 예관의 관리들이 허겁지겁 피난 나오는 통에 분실되고 최충헌의 집에 있던 예서를 피난지인 새 수도 강화도에서 새롭게 편찬했다는 것입니다. "新印신인"은 바로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신인상정예문』이 아쉽게도 현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려 정부는 팔만대장경을 판각하고 있어서 강화도가 인쇄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에 한 명실공히 문화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신인상정예문』이 현존한다면 독일의 쿠텔베르크 '42행성서'보다 무려 221년이나 앞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 금속활자 발명국 인쇄술의 선진국가라는 위상이 그리 뚜렷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일 뿐 실존하는 실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서가 된 고 박병선 선생께서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우연히 『直指직지』를 발견합니다. 『직지심체요절』 또는 『백운화상초록불조심체요절』란 긴 제목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것입니다. 이 책을 발견하자마자 선생께서는 모국 대한민국의 문화재임을 직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1866년 10월에 프랑스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약탈된 『조선왕조지』를 찾던 중 대단한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한문학과 인쇄술에 대해 문외한이었지만 각고의 연구 끝에 『직지』가 1377년 고려 우왕 3년 청주목 흥덕사에 금속활자로 간행된 것임을 밝혀냅니다. 2001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므로 구텐베르크의 '42행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선 것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한 학자의 모국에 대한 열정이 인쇄술 문화의 대국임을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갑곶진은 프랑스군이 침략한 곳입니다.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에서 최초 금속활자본이 『직지』가 발견되었고, 강화도 갑곶진에 '금속활자발상중흥기념비'가 세워진 것이 어찌면 우연이 아닐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감득할 뿐입니다. 도산 선생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문화를 바르게 아는 것만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입니다.

注) 참고자료; 최준식 『직지와 의궤에 일생을 바친 박병선』

내가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준비

강화군 내가면은 지난 23일 주민자치위원회 및 면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2022년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위한 배추모종 700개 등의 이식 작업을 완료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민·관이 혼연일체 되어 관내 저소득 가정이나, 독거노인 등에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순애 주민자치위원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임에도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면사무소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오늘 심은 배추를 잘 가꿔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 김장 나눔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은석 면장은 “김장에 들어갈 여러 재료들은 주민 자치위원이 손수 재배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장 나누기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가면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내가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선원면 노인회 경로당 순회 환경정화 활동

강화군 선원면 노인회(회장 김선하)는 지난 22일 선원면 연리(능진) 경로당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찬우물 노인자원봉사클럽’ 회원을 포함해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선원면 노인회 현안 회의 및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를 진행 하였다. ‘찬우물 노인자원봉사클럽’은 선원면 각 경로당의 회장 및 사무장 등으로 구성돼 매월 2회 꾸준히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임 분회장의 취임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선하 회장은 “취임 후 첫 행사로 회원분들과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람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선원면 노인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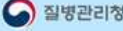
서광석 선원면장은 “모범이 되어주시는 선원면 노인회에 감사드리며 늦더위와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건강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원면 노인자원봉사클럽 환경정비

건 · 강 · 참 · 살 · 이

치사율 50%, 비브리오패혈증 바로알기

2021.06.10.


비브리오패혈증

비브리오패혈증균
(*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



예방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환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원인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증상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1/3은 저혈압이 동반,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치료
병변절제(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치료

비브리오패혈증은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작년 22명이 비브리오패혈증으로 사망했다.

매년 5~6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 또는 완전히 익혀먹지 않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하여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최대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대부분 증상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주로 하지에 발생한다.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를 형성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며 피부가 괴사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 치사율이 50% 전후로 매우 높기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바닷물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며,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물놀이 및 바닷물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어패류, 게, 새우 등 날 것 섭취를 피하고,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 및 85도 이상 가열(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5분동안 더 끓인다)하며,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권주형 기자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군민을 섬기는 강화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의회
GANGHWA-GUN COUNCIL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